

제주도내 비쭈기나무의 분포 및 엽형변이

송관필, 문명옥, 현화자, 송국만, 임은영, 문희권, 박창호, 김문홍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과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ly Inhabited Areas of Native and Variation of Leaf Form of *Cyeyera japonica* Thunb. on Jeju Island

Gwan Pil Song, Myung Ok Moon, Hwa-Ja Hyun, Kuk-Man Song,
Eun-Young Yim, Hee Kwon Moon, Chang Ho Park and Moon-Hong Kim

Department of Life Science, Cheju National University, 690-756

제주도내 자생하는 비쭈기나무를 절지, 절엽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자생지 및 엽형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비쭈기나무는 해발 100m에서부터 해발 810m까지 분포하였고, 대부분이 한라산 남쪽사면 위치하였으며, 비쭈기나무가 출현하는 지역에서 상재도가 높은 수종은 사스레피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개서어나무 등이었다.

비쭈기나무를 가지고 있는 식생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낙엽수인 개서어나무가 고목층을 이루고 고목 또는 아고목 층에 황칠나무나 동백나무 그리고 굴거리나무와 같은 상록수가 발달해 있는 지역, 붉가시나무가 우점하는 지역,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는 지역, 곰솔, 구실잣밤나무 등이 많고 동백나무가 하층식생을 이루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다.

효돈천을 해발고 200m, 400m, 700m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자생하는 개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당 10개체, 개체별 10가지, 가지별 10개의 잎을 엽신의 길이, 엽병장, 엽폭을 측정하여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쭈기나무의 엽신의 길이는 신하교(해발 200m) 8.13 ± 1.29 cm, 동홍채종원(해발 700m) 8.66 ± 1.19 cm 그리고 신례천(해발 400m) 7.70 ± 1.12 cm로서 동홍채종원에서 자생하는 개체의 엽신이 길었다. 최소값을 갖는 개체는 2.75cm로 신례천에서 자라는 개체였으며, 최대값을 갖는 개체는 12.32cm로서 신하교에 자생하는 개체였다. 엽폭은 신하교 3.18 ± 0.47 cm, 동홍채종원 3.21 ± 0.47 cm 그리고 신례천 2.75 ± 0.38 cm로서 신례천의 개체가 비교적 좁은 엽폭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폭의 최소값을 갖는 개체는 1.04cm로 동홍채종원의 개체였으며, 최대값을 갖는 개체는 5.02cm로 신하교근처의 개체였다. 그리고 엽병의 길이는 신하교 0.85 ± 0.19 , 동홍채종원 0.82 ± 0.17 , 신례천 0.81 ± 0.16 으로 세지역 모두 비슷하였다. 엽병장의 최소값을 갖는 개체는 0.20cm로 동홍채종원의 개체였고, 최대값을 갖는 개체는 1.83cm로 신하교근처에 자라는 개체였다.